

광양시 소상공인 경영실태 조사...“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1000명 표본...일반현황·경영 여건·상권 활성화 등 면접 설문 현장 애로사항도 파악...업종·지역별 특성 반영한 실효적 지원

광양시가 소상공인 경영실태 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에 나섰다.
광양시는 내년 4월까지 코로나 이후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경영실태를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일반현황 기본조사와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관련 법률, 정책, 이슈를 반영해 지역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설문지를 설계하고, 설문지 확정 이전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개 내외의 규모로 파일럿 테스트도 실시한다.
일반 현황조사에서는 사업체 형태, 업종, 창업일, 입지 유형 등 일반현황과 창업 이력, 창업 동기, 창업자금 등의 창업 현황, 영업시간 및 일수, 매출액(월, 연) 변화, 종업원 채용·임금·근로시간, 부채, 임대료 및 권리금 현황을 조사한다.
경영 여건 현황은 사업장 운영상태와 사업 지속성 여부를 조사하고, 지원정책 정보 수용, 광양시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신용보증 지원 관련 사항 등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만족도도 조사한다.

특히 상공인회 가입 여부와 활동, 특화거리 활성화 가능성, 선호하는 축제와 이벤트, 상권 활성화 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 조사'도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면접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면접원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원 선발 후 교육해 조사결과와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실태조사가 이뤄지면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사 조사 결과 및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조사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및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화엽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이번 용역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효적인 소상공인 단기·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문체부 전국 지자체 경진대회 광양시 대표 캐릭터 '매돌이' 우리동네캐릭터 우수상 수상

광양시 대표 캐릭터 '매돌이'가 제6회 우리동네캐릭터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리동네캐릭터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대표 캐릭터 중 최고 캐릭터를 선정하는 경진대회이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137개 기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으며 지난 9월 초부터 전문가 심사(50%)와 국민투표(50%)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매돌이는 영원한 10살인 예의 바르고 창의적인 개구쟁이의 매력을 마음껏 뽐내며 '우수상'을 수상해 광양시 홍보대사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
지역 농특산물인 매실을 개구쟁이 소년으로 의인화 해 개발한 매돌이는 매실의 '매'와 귀여운 남자아이 이름 '돌이'를 합하여 '매돌이'로 이름 지어졌다. 귀여운 외모와 예능감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매돌이는 광양시 홍보대사로 임명돼 광양매화축제, 광양전어축제 등 광양대표축제에서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달 14~15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진행된 우리동네캐릭터 축제에서도 매돌이만의 매력을 뽐냈다.
정혜중 광양시 홍보소통실장은 "매돌이를 응원하고 투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매돌이와 함께 더욱 친근하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광양의 숨겨진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 운천과 소호동을 연결하는 선소대교.

20일부터 여수 선소대교서 낚시 못한다

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

여수시 운천동과 소호동을 해상 연결하는 선소대교가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도심권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통된 선소대교에는 하루 1만 5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여수의 밤바다를 즐기는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선박·차량 및 인명사고를 예방코자 선소대교 교량구간 550m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10월 유관기관과 민간 단체, 주민 등에 대해 선소대교 낚시 통제 구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어 현재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오

는 20일 행정예고가 끝나면 선소대교 교량구간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낚시 통제구역 지정 후 낚시를 할 경우 최고 8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낚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에서 크고 작은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코자 합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종포해양공원, 소호동동다리 등 다중집합장소 5개소와 돌산대교, 이순신대교 등 14개의 교량(대교)이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수=김창환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지난 대회 '100인 판소리 합창공연' 모습.

보성군민 100명 한마음으로 부르는 판소리 사랑가

오늘 보성종합예술제 합창 공연 지역 예술단체 다양한 공연·전시

소리의 고장인 보성의 군민 100인이 판소리 사랑가 합창공연을 펼친다.
보성군은 한국예총 보성지회가 주최·주관하고 보성군이 후원하는 제3회 보성종합예술제가 9일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보성종합예술제는 보성 문화예술단체와 군민들이 함께 공연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소리의 고장 보성에서 명창의 특훈을 받아 소리꾼으로 거듭난 보성군민들이 펼치는 '100인 판소리 사랑가 합창공연'이다.
마을 곳곳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와 역사를 발굴해 다양한 가치가 있는 마을문화를 문화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동네 명물, 우리가 알린다! 읍면 마을이야기 대화'가 진행된다.
보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미에스댄, 보성소리보존회, 보성소리마당, 아리랑예술단, 보성소리창극단, 보성문인협회, 보성미술협회, 보성연예

술인협회 등 지역 예술단체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준비돼 있다.
이번 종합예술제는 전라남도의 '2023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7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총 1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서정미 한국예총보성지회장은 "예향의 고장 보성만의 특색 있는 지역화합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했다"며 "군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보성=김승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경제청이 부산 BEXCO에서 열린 'Invest Korea Summit 2023'에 참가해 투자환경 홍보와 해외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광양경제청 제공>

투자 최적지 광양만권으로 오세요

광양만권경제청 부산 벵스코서 해외기업 대상 투자 유치 활동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부산 벵스코에서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펼쳤다.
8일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6일부터 3일간 부산 벵스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에 참가해 투자환경 홍보와 해외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한 이번 행사의 테마

는 '한국 첨단산업 우수성과 공급망 관점의 글로벌 투자협력'이다.
광양경제청은 이차전지 분야를 기반으로 해상풍력산업, 에너지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유치에 최적지임을 홍보했다.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광양만권의 앵커기업과 연계한 이차전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급 기지 구축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며 "광양만권의 우수한 이차전지 산업 여건을 바탕으로 해외 유망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한라봉 당도·산도 측정 서비스 지원

검사 결과 따라 관리 기술 지도

고흥군이 11월말까지 한라봉 생산 농가의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당도·산도 측정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진>
한라봉은 신맛이 강한 상태에서 수확하면 '한라봉은 맛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새콤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당도 13 브릭스 이상, 산도 1.0% 이하로 당산비를 맞춰야 한다.
맞있는 한라봉 수확을 위해서는 목표 당도·산도를 맞추기 위해 물관리 등 산 함량 관리가 필요하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는 한라봉뿐만 아니라 다른 만감류인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도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서 당도·산도 관리가 중요하므로 당도·산도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사 방법은 구역별로 나누어 과일을 채취하되 한 나무에서 3과(나무의 상, 중, 하 구분)를 가져와 의뢰하면 당도·산도 검사 결과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농가별 맞춤형 산도 관리 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최고품질 한라봉 생산을 위해 11월 한 달간 물관리 및 병충해 방제 등 현장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곡성군 '꿈놀자...' 국민정책디자인 후보에

10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심사

곡성군 '꿈놀자 놀이터 조성사업'이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2차 심사 대상에 올랐다.
우수과제 2차 심사 대상에 오른 '꿈놀자 놀이터 조성사업' 제목은 '그럼 우리 어디서 놀아요? [특명] 놀이터를 구(求)하라'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정책디자인 과제를 발굴해 포상하고, 국민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곡성군은 아이들과 주민이 직접 참여해 디자인하는 '꿈놀자놀이터 조성사업'으로 국민정책디

안에 응모해 총 110건 중 37건에 선정돼 2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2차 심사는 대국민 온라인 심사와 전문가의 대면심사 결과를 토대로 37건 중 23건을 선정하고, 최종 심사에서 10건으로 좁혀진다.
'소통24' 홈페이지를 통해 10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심사가 진행 중이며 국민 누구나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꿈놀자놀이터 조성사업은 곡성군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개선사업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꿈놀자 놀이터 사업이 전국의 우수사례로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수서 '남해안권 해양 관광·MICE 도시 포럼'

10~11일 음식업체 20곳 참여

'남해안권 해양 관광·MICE 도시 포럼'이 10~11일 이틀간 여수시 예술마루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남해안권의 자원을 널리 알리고 해외방문객을 유치시키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웰니스 푸드의 첫번째 이야기'를 주제로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를 비롯한 남해안권 지역 음식 관련 20개 업체가 참여하는 부스, 포스트 투어 등으로 마련된다.
'슬로푸드, 변화와 재생' 주제의 기초강연을 시

작으로 좋고 건강한 음식들과 웰니스 정책과 지역 활성화 사례, 웰니스 푸드 관광상품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여수 특산품과 기념품을 포함한 남해안권의 강진, 고흥, 장흥, 하동, 장원 등 각 지역의 밥상과 음식 자원, 특산품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남해안권의 풍부한 자원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 남해안권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여수시가 글로벌 해양 MICE 거점 도시의 도약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환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